

# 肝硬變, 脾胃論의 大家 東垣李杲 小傳

朴 商 明



## I. 肝硬變(肝硬化)

### 한의학적인 肝膽의 생리 기능

간은 목(木)에 속하고 그 성질은 조달(條達) 올라가고 동(動)적인 기능이 있으며 간은 또한 혈을 저장하고 그 운용에서 나가게 하고(肝主疎泄 能藏血 以血爲體하고 以氣爲用 간주소설 이혈위체 이기위용) 우리 인체에서 혈을 운용하는 중요한 장부라 할 수 있다 간은 눈과 서로 통하고 인체의 근(筋)을 주관하고 그 기능은 손톱에 나타난다고 하며 간의 경락은 족소양 담경과 연결하고 담(膽)과의 표리관계이다

「東醫寶鑑」 139p 간속물류(肝屬物類)에 기록을 보면 하늘에는 풍(風)에, 땅에는 목(木)에 속하며 체(體)에는 근(筋)이며 장(臟)에는 간(肝)이며 색에 있어서는 창(蒼)이며 음(音)에는 각(角)이며 성(聲)에는 호(呼)이며 변동은 악(握)이며 규(竅)는 목(目)이며 미(味)에 있어서는 산(酸)이며 지(志)에 있어서는 노(怒)이며 액(液)은 누(淚)이며 영(榮)은 조(爪)이며 취(臭)는 조(臊)이며 괘(卦)에는 진(震)이며 곡(穀)은 마(麻)이며 축(畜)은 건(大)이며 충(蟲)은 모(毛)이며 채(菜)는 해(薤)이며 그 맥은 족궤음 간경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고대 한의학자들이 이렇게 간에 대한 다양한 논리로 우주 만물에 비추어서 한가지도 빠짐이 없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간주소설(肝主疎泄)이라고 하는데 간의 소설하는 기능으로서 인체의 기능을 조정하고 경락과 장부와 신지(神志)와 기혈 등 모든 곳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주승(主升)과 주동(主動)하는고로 인체의 기기를 소통(疏通)케 하고 정상적인 소설작용에 의하여 기혈이 조화하고 경맥이 통리(通利)하고 수도가 통창(通暢)하면, 즉 질병이 발생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비위의 운화(運化)를 도우며 담즙분비로 인하여 소화 기능을 원활히 하고 청탁을 분류하는 데에 공헌을 하며 정지를 화창하게 조정하

고 통이 수도하여 인체 내에 정상적으로 수분을 조정 배설하는 데에 주력하고 인체 내에 혈량을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간경화의 현대의학상식상 설명은 간은 해독하는 장부로서 한약의 독성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약을 복용함이 불가하다고 설명하고 모든 환자에게 한약 복용을 자제토록 권하고 있음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환자는 한방 치료로도 경변의 증식이 억제되고 치료 가능한 처방이 다양함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처방 외에도 많은 방문이 간장 질환에서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시호탕 합 내소산(內消散 合 小柴胡湯)과 만성 간경화로 복수(腹水)가 차는 질환은 소창음자(消脹陰子)가 대표적인 처방이며 또한 용담사간탕(龍膽瀉肝湯)도 그 효과를 기대할 만한 처방이며 상화가 향진할 때에 도씨승양산화탕(陶氏升陽散火湯) 등도 권장할 수 있는 처방이다.

### 1 柴胡疎肝散 合 四君子湯 加減

柴胡 三錢, 白芍藥 三錢, 枳殼 二錢, 香附子 二錢, 陳皮 二錢, 茯苓 二錢, 人蔘 二錢, 白朮 二錢, 鬱金 二錢, 玄胡索 二錢, 炙甘草 一錢

### 2. 小柴胡湯 合 內消散

### 3 清肝解鬱湯

4. 龍膽瀉肝湯 등등은 간경변에 특수한 처방들로서 치료 가능한 처방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4~50대에 간으로 인한 사망률이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고 있다 간은 우리 인체에서 청소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해독장부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 중요한 장기가 외부로부터 많은 자극을 감수하여야 하고 독극물 해독은 물론 다른 여타의 정신적인 충격도 흡수하여 정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으며 간은 또한 세포가 군소집단으로 구성하고 통증을 감지할 수 없는 기관으로서 인체 내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내경(內經)은 오장의 기능을 간은 음장(陰臟)중에서 양장(陽臟)으로서 항상 그 남음을 두려워한다고 하고 보(補)를 허용하지 않으며 또한 사(瀉)하는 장기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간은 상화(相火)라고 하는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간은 그 열을 보충할 수 없는 장부이며 모든 간장의 지령은 열의

원인 상화(相火)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현대의학상으로 병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간경화의 실체를 찾아보기로 한다 간경변(cirrhosis of liver)인 간경화는 일종의 만성 진행성 간장질환으로서 항상 볼 수 있는 흔한 증세이다 간세포가 광범하게 변성(變性)하고 괴사(壞死)하며 이어서 섬유조직(纖維組織)이 증가하고 간세포가 결절형태(結節形態)가 재생되는 것이 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세가지가 교차 진행을 반복하면 간장체적(肝臟體積)이 축소하고 질(質)이 경(硬)으로 변하고 표면과 절단면으로 보면 결절(結節)형상이 나타나면 이것을 간 경변(硬變)이라고 말한다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간소엽(肝小葉) 등에서 결구(結構)와 혈액순환이 조금씩 파괴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임상적인 견해로는 간 기능이 약해지고 동일하지는 않으나 문맥 고압증(高壓證)이 발생하고 혹은 복수가 발생한다 우리 한의학적인 견해로는 병명을 고증하면 “고창(臌脹)” 혹은 “단복창(單腹脹)” 등으로 볼 수 있다

간경화의 발병원인이 다양하게 그 원인이 있으나 간 실질(實質)만성 또는 진행성으로 손상된 질병으로 볼 수 있다 최종적인 간 경변으로 진행된다고 본다. 발병원인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병변(病變)이 특점과 임상에서 나타나는 간경변을 분류하여 보면 다섯 가지의 원인을 들 수 있다

① 문맥성 간경변 이것은 가장 많이 보는 한 류(類)이며 많은 원인을 가지고 있으며 경변이 이루어진 이후에 문맥 고압증세(高壓證勢)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② 괴사후(壞死候) 간(肝) 경변 간실질(肝實質)이 큰 편으로 간 경변을 이루고 중형(重型)병독성 간염 혹은 화학 약물 등으로 간 실질이 손상된 후에 발생하고 이것을 양방에서 검사를 하여 보면 간의 결절 조(粗)가 크고 또는 작게 나타난다고 하고 있다.

③ 담즙(膽汁)성 간경변 · 담도가 폐색(閉塞)하여 담즙이 어적하고 간세포 등이 손상으로 인하여 섬유화(纖維化)하여 발생하고 여기에서는 그 막힌 것이 확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모세 담관 내에 담전(膽栓)이 형성하고 소담관(小膽管) 주위에 염증이 나타나 있고 간장세포(細小)한 결절이 항상 있으며 또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한다

④ 어혈성 간경변 . 이것을 심원성(心原性) 간경변이라 하고 이것은 만성 심기능

心機能) 이상으로 장기간으로 간장에 어혈이 결양(缺氧)하여 섬유화로 변한 것이다. 이럴 때는 간장이 약간 작아 지거나 혹은 반대로 커질 수도 있다 간이 단단하고 홍갈색으로 변하여 빈랑(檳榔)간으로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⑤ 기생충(寄生蟲)성 간경변 : 피를 빨아먹는 충에 의하여 발생한다 흡혈충의 알이 문맥맥 지류에서 기생하고 그 주위의 결체조직(結締組織)을 자극하여 수지(樹枝)모양으로 변성하며 불규칙적으로 간장엽(肝臟葉)이 구분되어 대추모양으로 오목하게 이루어지고 간장이 작게 구분모양으로 변경(變硬)하여 진다

각종 간경변이 병리 형태가 비록 다 같지는 않으나 다만 기본 병변(病變)은 모두가 일치 한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문맥성(門脈性) 간경변을 천술(闡述)한다

문맥성 간경변(portal cirrhosis) 또한 Laennec,s간경변 혹은 소결절형 간경변이라고 하고 발생원인이 장기간 영양실조나 혹은 술의 중독과 유관하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병독성 간염에서 장기적인 치료가 안되어서 발생한다고 하고 있다

문맥성 간경변은 병의 원인과 발병병리가 틀림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적인 견해는 많은 원인으로 작용되었다고 결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원인은 대략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서양 의학적인 견해로서 병독성 간염 영양불량과 만성적인 술 중독과 위장도 감염과 화학적인 독극물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간경변은 한방의학적으로 볼 때에 적취(積聚), 고창(蠱脹), 황달(黃疸), 협통(脇痛) 등으로서 이 원인은 칠정내상(七情內傷)으로 볼 수 있다 음식부절(飲食不節)하고 습열울체(濕熱鬱滯)하고 충독(蟲毒), 술 등의 원인으로 간과 비를 손상하여 소설(疎泄)을 실사(失司)로 운화(運化)가 실상(失常)하여 간기가 울결(鬱結)하고 혈행이 어체(瘀滯)하여 간맥에 응조(壅阻)하여 적취가 형성한다 나아가서 기체 습조(濕阻)수습이 내온하고 혹은 습울화열(濕鬱化熱)하여 습율이 중초에 막히면 간담에 소설(疎泄)작용이 불리하고 담즙이 밖으로 넘치며 황달이 발생하고 기와 혈과 수가 서로 박결(搏結)하면 점차적으로 고창(蠱脹)이 형성한다고 한의학적인 이론을 담고 있다

간경화는 병이 발생하여도 본인이 감지가 불능하여 천천히 진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식욕이 감퇴하고 오심구토와 배가 창만하고 설사를 하며 항상 권태하고 체중이 감소하며 비출혈(鼻出血)이 발생하며 간 종대 혹은 감소하고 간질이 경경하고 비장종대를 동반하고 얼굴이 검게 마르며 얼굴 볼에 소혈관이 확장(擴張)하고 황달도 동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대 의학적으로 초음파 또는 혈청검사를 하여 쉽게 질

병을 감지할 수 있으나 명확한 병리 검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아주 똑떨어지는 발병의 이론은 설명이 어려우나 대다수의 환자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항상 상화가 발생하여 직접적인 간의 영향을 행사하고 또 하나는 선천적인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일 수록 쉽게 해로운 병균에 감염되기 용이하기 때문에 설명을 대변할 수 있다

그러나 간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진행이 완만하고 통증의 감지가 불능하여 자신이 특별한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진행과정이 표출되지 않으니 진행 방향을 알 수 없고 만성으로 경과하여 치료과정을 어렵게 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현대과학적으로 볼 때에 현대 과학적인 도구에 의하여 초음파나 C.T 등으로 옛날에 모르고 지나가던 이 어려운 질병을 쉽게 찾아서 치료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과학 문명의 힘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 II. 脾胃論의 大家 東垣李杲 小傳

보중익기탕의 創制者인 동원이고(東垣李杲) 선생은 한의학에서 의성(醫聖) 칭호를 할 수 있는 대가이다

우리에게 친하게 접하여지고 있는 동원 십서(十書)는 비위론의 대표적인 의학서이다 즉 비위는 원기와의 상호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비위는 또한 정기 승강(升降) 작용에서 중간에 위치하고 이에 대한 정론을 비위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상학설과 출생과 성장학술 연원(淵源) 등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고(李杲)의 자는 명지(明之)로서 만년(晩年)에 동원 노인이라고 불렸으며 송금시대(宋金時代) 하북성 보정시의 사람으로 1180년에 출생하고 1251년에서 이 고을의 부호의 자제로서 어릴적부터 의학을 공부하고 20세에 모친이 사망한 후로 더욱 의학에 정진하여 명의가 되었으며, 주로 장원소(張元素)의학 이론(理論)을 사사(師事)하고 이후 금나라에서 세무관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에 몽고군이 침입하여 개봉(開封)을 포위하여 1232년에 산동 연성(聯城)과 동평(東平)에서 피란하고 1244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으며 이때에 전쟁으로 기아(飢餓)와 노역(勞役)으로 한온(寒溫)을 잃어버리고 생활이 어려워서 두려움으로 생활을 하다보니 비위의 내상질환이 많아서 당시에 의학가

의 처방 등도 좋을 수가 없어서 태평हे민 화제국방과 유완소(劉完素)와 장종정(張從正) 등의 경험방으로 온조(溫燥)한약이나 혹은 한량(寒涼)약으로 공하(攻下)법 등으로 치료를 하여서 민간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서 이때에 동원은 장원소(張元素)의 장부 변증학설을 골격으로 하고 내경(內經)의 인이위기위본(人以胃氣爲本), 득곡자창(得穀者昌), 실곡자망(失穀者亡), 오장육부개품기우위(五臟六腑皆稟氣于胃) 등의 이론에 기초하고 또한 난경이나 상한론과 모든 의학경전을 참고하여 자기가 임상에서 얻어진 경험과 내상비위 백병유생(內傷脾胃 百病由生)한다는 논리로 동원은 독창적인 한방의학에서 큰 공을 세운 것으로 전하여 지고 있다

수많은 저서를 남기고 있으며 대표적인 저서로는 비위론(脾胃論) 3권과 내외상변혹론(內外傷辨惑論) 3권, 난실비장(蘭室秘臧) 3권이 있다 여기에서는 비위의 생리적인 기능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내상으로 인한 발병의 원인과 치료방법과 투약에까지 이동원의 독특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맥경지장병식도설(脈經指掌病式圖說)과 활법기요(活法機要)와 의학발명(醫學發明)과 동원식효방(東垣式效方) 9권과 상한회요(傷寒會要)와 상한치법거요(傷寒治法舉要)와 만유방(萬愈方) 등의 수많은 저서를 남기고 있다

이고 이동원 선생은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하였으나 전쟁에서 침략을 당하고 수많은 병약자가 출현하여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서 볼 때에 요즈음같이 임상으로 그 경험을 축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며 주변에서 병상자가 속출하여 한층 더 연구의 대상을 많이 겪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 1. 脾胃는 元氣之本이다.

여기에서 이동원선생이 주장한 기(氣)는 인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원천으로 장부의 기능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다른 설명을 부친다면 장부의 활동에서 얻어지는 부산물(副產物)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기는 즉 인체의 건강과 병리변화를 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이동원 선생이 설명한 기는 즉 원기(元氣)라고도 하고, 내상으로 인한 병의 형성과정으로 원기부족으로 주장하며 또한 다른 설명으로 비위가 손상함은 원기를 상실케 하는 주범으로 규정하고 원기는 인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큰 원천으로 비위의 허손(虛損)과 원기를 결구(結構)하여 설명을 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진기우명원기(眞氣又名元氣), 내선신생지정기야(乃先身生之精氣也), 비위기불능자지(非胃氣不能滋之)” 또한 “부원기, 곡기, 영기, 위기, 생발제양지기, 차수자, 개음식입위상행, 위기지이명, 기실일야(夫元氣, 穀氣, 營氣, 衛氣, 生發諸陽之氣異名, 其實一也)” 이렇게 하여 여러 형태로 기를 설명하고 즉 이 모든 기는 어떻게 이해를 하여도 그것은 곧 위기를 충하여 발생한다 즉 음식이 아니면 모든 기가 발생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원기가 충만하지 못하면 모든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하여 비위는 원기의 본원(本源)이며 원기는 건강의 근본이 되며 비위가 손상하면 원기가 쇠하고 원기가 쇠하면 질병이 발생한다. 즉 이동원이 비위 내상학설에서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 2. 비위위승강추뉴(脾胃爲升降樞紐) 즉 승강의 중심 축이다.

이동원은 일체의 자연계의 사물이 시간적인 운동을 하고 있으며 그 운동의 형식으로 승강부침(升降浮沈)적인 변화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천지음양생살지이(天地陰陽生殺之理)”라고 또한 고대 음양학설을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년 사계절 중에서 봄은 수(首)위에 해당하고 춘하의 계절은 지기(地氣)가 승부(升浮)하기 때문에 성장하고 만물은 여기에 따라 싹이 나고 무성하게 성장하며 추동(秋冬)에는 천기(天氣)가 침강(沈降)하여 만물은 살장(殺藏)하고 이리하여 일년의 기는 승강의 운동으로 장하(長夏)에는 토기가 중앙에 머물러서 추(樞)를 이루고 사람 또한 자연계와 소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주의 자연계 운동원칙에 동화하고 이와같이 하여 인간의 축은 비위에 있으며 여기에 학술적인 논거로는 “만물지중 인일인야, 호흡승강 효상천지, 준승음양 개위위수곡지해, 음식입위 이정기선수비 귀폐, 상행춘하지령, 이자양주신, 내청기위 천자야, 승기이하수방광, 행추동지령 위전화조박, 전미이출 내탁음위지자야(萬物之中 人一也, 呼吸升降 效象天地, 准繩陰陽 蓋胃爲水穀之海, 飲食入胃 而精氣先乎脾 歸肺 上行春夏之令, 以滋養周身, 乃清氣 爲天者也 升已而下輸膀胱, 行秋冬之令, 爲輸化糟粕, 輸轉味而出, 乃濁陰爲地者也)” 가령 비위가 손상을 입으면 두가지로 서로 다른 질병이 증세로 변화하는데 “或下泄而 久不能升(설사를 하여 오래되어도 거두어지지 않으며), 是有秋冬而 无春夏(이런 증세는 추동에는 있을 수 있으나 춘하에는 없을 것이다), 내생살지 융합우운살지기(乃生殺之用陷于殞殺之氣), 이백병개기(而百病皆起) 흑구승이불강

(或久升而不降) 역병언(亦病焉)” 또한 그러나 비위가 승강운동의 축이라고 알고 있으나 특별히 강조할 것은 생장에서 승발(升發)일면으로 인정은 말아야 한다 또한 다만 곡기(穀氣)상승하고 비기가 승발하면 즉 원기재능이 충폐(元氣才能充肺)하면 생기재능(生氣才能)은 넘칠 것이다 그리고 음화의 재능(陰火才能)은 수렴하여 잠길 것이며 이로 더불어 상반하고 또한 곡기가 승하지 못하고 비기가 하류(下流)하면 원기는 장차 휴핍(虧乏) 즉 기운이 떨어질 것이며 소침(消沈)하여 질 것이며 생기가 모이는데는 크나큰 영향을 받아서 기를 운용하는데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이론상으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비위의 양기를 승발(升發)하려면 치료약을 쓸 때에 항상 승마와 시호는 청량(淸涼)기를 상승(上升)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위허하면 장부와 경락의 모든 기능이 기를 받지 못하여 질병이 발생하고 “脾胃가 虛하면 九竅가 不通(비위가 허하면 구규가 불통)” 한다는 위허(胃虛)하면 원기가 부족하여 백병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다. 원기와 진기를 승발하는데에는 항상 비위의 기를 승발하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이동원은 비위의 기를 승발하는 외에도 일방으로는 음화를 잠강(潛降)하는 치료방법을 강구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즉 승(升) 위기하고 강(降) 음화를 하도록 구사하여 지고 있다 상반관계이나 위기를 상승하면 음화는 하강한다 이동원은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1 음식부절 . 음식에서 절제가 없으면 위장병이 발생하고 또한 위장병이 있으면 기운이 없고 신기(神氣)가 약화된다고 보고 있다 대열이 발생하여 습화(濕火)가 상행하여 얼굴이 화끈한 증세를 느낄 수도 있다 <<황제내경>>은 면열자는 족양명(足陽明)병이라 하고 위병이 있으면 “비무소품수(脾无所稟受)하기 때문에 또한 병이 따라올 것이다”고 하고 있다

2 노역과도(勞役過度) 육체적인 노력을 과다하게 하면 비병(脾病)이 발생하고 비병이 발생하면 눕고싶고 게으름이 발생하고 사지를 거들 수 없으며 혹은 대변설사를 동반하는 수도 있다 이미 비병(脾病)이 발생하면 위가 진액(津液)을 독자적으로 윤표(潤布)하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병으로 볼 수 있다

3. 칠정소상(七精所傷) 이 원인은 희노우공(喜怒哀恐)이 원기를 모손(耗損)하여 심화를 자조(資助)하기 때문에 화가 승(勝)하면 토위(土位)를 범하여 발병할 것



이다 비위의 병은 발생하는 순서가 위에서 언급한 종합적인 원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정신적인 작용이 더 크다고 보고 희노우비공의 오적(五賊) 소생(所生)하면 위기가 불행(不行)하고 노역(勞役)후 음식 불절(不節)하면 원기 또한 손상할 것이다 이밖에도 신체가 근본적으로 약한 사람이나 심기가 부족하거나 음식노권하면 심화가 발생하여 승비(乘脾)한다고 이동원은 이론을 제기하고 있다

원기와 음화는 서로간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대립과 통일성으로 보고 있으며 즉 원기가 폐를 충(充)하면 하초(下焦)에 있는 음화가 렴장(斂藏)하고 정상적인 생리기능을 발휘하고 원기가 부족하여 음화가 항성(亢盛)하면 각종 질병이 발생한다 또한 원기가 부족하여 심화가 홀로 왕성하면 군주가 명령의 계통이 없어지고 오히려 상화(相火)가 원기를 해하기 때문에 발생 질병하고 이동원은 음화의 발생 원인을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비위 기허하기 때문으로 보고 둘째는 정지울알(情志鬱遏), 전자는 음식 부절(不節)에서 기인하고 후자는 칠정을 자극하여 발생한다고 한다. 이로써 중기부족하고 원기가 손상하면 이동원은 본인이 창제(創制)한 보중익기탕으로 다스렸다고 하고 있다 이동원이 인식하고 있던 것은 비위에 이미 음화가 소승(所乘)하면 곡기가 폐색(閉塞)하여 하류하고 곧 청기는 승하지 못하고 그리하면 구구(九竅)가 불리하고 구구에 유병(有病)하면 승강의 규칙을 상실하고 위기가 허약하면 수곡의 운화의 기능도 불리하여 진액의 상하로 운송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이동원은 비위의 기능을 강화하여 음화를 억제하고 중기부족을 도와서 폐의 기능을 높이는데 전념하고 보중익기탕같은 신비한 처방이 창제되었음을 실감하고 있게 한다

우리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보아도 국가의 난세를 당하여야 충신이 발생하는 법이며 이학논리를 창안한 역대 의가들도 성장배경이나 주변에서 수많은 환자가 발생한 뒤에야 명가의 명방(名方)이 탄생되었으며 이동원 또한 당 시대에서 전쟁 중에서 이후의 수많은 불쌍한 백성의 질병을 직접보고 연구를 하였으며 또한 수많은 의학서적을 탐독하였고 선대의 장원소 같은 높은 학문을 가진자에게 의학의 논리를 전수 받았음도 볼 수 있다 역대 의학의 대가들보다도 주로 비위론을 정립했으며 현재까지 후학자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남방리 217 인화당한약방 ☎ 031-856-0014)